

박물관문화

Museum Culture No.26 Autumn / Winter 2014

東坡先生赤壁遊圖
兄某在蘇子東坡遊赤壁十四週年之辰也後代之不感其奇
遇特書此圖以寓追慕風韻之意焉
七十一 白雲 池 英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가을특별전

근대화 - 대한제국에서 1950년대까지

근대기의 우리 복식

이번 호의 인물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장 장남원

전시리뷰 | 근대화 - 대한제국에서 1950년대까지

박물관 문화행사 | 문화가 있는 날

전시연계 학술특강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소식 | 2014 가을특별전 개막식 외

소장품 갤러리 | 독서하는 친구



사람을 품는 살아있는 박물관

이화의 정문으로 들어서면 가장 처음 만나는 곳은 바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1935년 개관하여 올해로 79주년을 맞았습니다. 단일 박물관으로서 전통을 지켜 이만큼 성장하고 현재 진행형인 우리 박물관의 오늘은 곧 한국박물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본교 미술사학과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하고 우리 박물관 연구원(큐레이터)으로 8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경험은 오히려 막중한 책임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우리 박물관의 특별한 존재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김활란, 김옥길 선생은 일찍이 박물관장을 겸하면서 우리 전통 문화의 수호자를 자청했으며, 역대 총장님들과 관장들 및 모든 구성원들이 박물관의 소임을 다하는데 지극한 정성을 다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격동의 근현대사를 겪으며 오늘을 지켰을 뿐 아니라 한국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미술전통을 앞장서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화의 문화 정체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박물관 지표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성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학박물관들은 녹녹지 않은 주변 여건들로 움츠러들고 외면당하는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의 섬 없는 몸짓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그때서야 소나무와 편백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는 옛 성현의 말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하나하나 긴 호흡으로 마주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 결국 21세기 한국의 대학박물관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특히 이화여대박물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장품에 대한 연구와 보존, 정리, 활용 등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소장품은 한 박물관의 존재 가치를 좌우하는 기초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2만점이 넘는 유물과 20여만점에 달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수장고는 항온항습 시설을 구비했고 소장품 정보는 DB전산화를 지속하면서 국가문화유산 시스템과 연동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입과 기증, 기탁 등의 절차를 통해 소장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확장으로 기초를 강화하려 합니다. 소장품 자체의 미술사적 연구와 컨디션 유지, 보존을 지속하고 데이터화하여 박물관의 기초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안목과 철학을 가지고 소장품을 결정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질 높은 전시를 통해 문화의 공적(公的)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전시는 이미 그 주제와 내용으로 오랫동안 주목 받아 왔습니다. 우리 전시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람객은 연간 5만여 명에 이릅니다. 좋은 전시는 전시 담당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 주제를 촉발하고 이슈를 부르며,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전시의 수준을 유지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성과와 예술적 감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꾸준한 연마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전시는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 도슨트, 인턴 등 전문 인력의 교육장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러기에 전시는 박물관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전시의 목적과 과정,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교내외에서 충분히 홍보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진력한다면 이화의 문화 자산을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의 울타리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해외의 국공사립 박물관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컬렉션의 수준과 기억에 남는 전시를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간접적인 교류를 통해 대표적인 소장품들과 전시가 알려질 수 있도록 주력하고, 가능하다면 인적교류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내외 여러 박물관들과의 호혜적 네트워크는 새로운 전시기법과 기술정보를 도입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소장품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유년 및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2015년부터 시작되는 성인 대상 심화교육과정은 공공박물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이화인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고 그 결과가 긍정적 에너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바야흐로 인구는 급증하고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재교육과 문화 향유에 대한 열망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박물관이 야말로 바로 이 같은 다양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내 구성원들은 물론, 누구든지 우리 박물관에서 쉬고, 즐기고, 학습하며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물관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를 되돌아보고, 현재에 공유하며, 다가올 미래를 열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은 축적된 우리 삶의 압축 파일을 무한의 미래 폴더로 옮겨주는 저장소이자 허브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이루며 순환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행복해지는 박물관으로 생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박물관장, 인문과학대학 미술사학과 교수 **장 남 원**



명성황후 발인반차도 明成皇后發輅班次圖
19세기 말, 51.4×2.198cm, 종이에 채색

근대화화 - 대한제국에서 1950년대까지

2011년부터 “가인佳人”, “백년가약”, “모성”, “상차림의 미학”과 같은 시리즈의 특별전으로 여성성 짙은 주제 의식과 문화사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 독보적인 큐레이팅 역량을 보여주었던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이 작년 가을 특별전 “모방의 미학” 이후 “미술과 이상”을 거쳐 이번 “근대화화”전에서 들려주는 것은, 좀 더 학구적이고 차분한 톤의 그림지만 차돌같이 단단한 자부심으로 뭉쳐진 자기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이다. 동양화단에서는 안중식, 조석진, 김응원, 김규진을 필두로 이도영, 고희동, 김은호, 이상범을 거쳐 장우성, 김기창까지를 전시실로 올렸고 서양화단에서는 이종우, 도상봉, 김인승, 심형규, 김환기 등의 작품을 시대 순으로 선보인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도자컬렉션의 명성은 알고 있었지만, 전통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근대화 컬렉션 역시 이렇게 풍부할 것이라고는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필자에게 있어서 이번 전시는 놀라움과 반가움 바로 그것이었다.

기획전시는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화화의 태동: 대한제국기’는 ‘근대화화교육의 탄생: 서화미술회, 서화협회와 ‘근대 동양화단의 발전: 새로운 모색’을 거쳐 ‘문인문화의 근대적 향유: 금란목회와 ‘서양화단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대한제국에서 1950년대 후반까지의 전반적인 범위설정과 색선구분은 적절하면서도 충분히 설득력있어 보인다. 특히 근대를 일제강점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50년대 말까지 연장시킨 것에서 기획의 고민이 엿보이는데, 이렇게 해방 이후 화단 풍경을 근대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근대는 개화와 이식된 모더니즘의 파장에서 더 나아가 전통복고라는 반향까지 포괄하는 보다 복잡한 표정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50, 60년대 이화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금란목회의 재발견은 그래서 이번 전시의 주요 포인트이자 성과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아회의 이념과 방식을 되살려 향유하고자 했던 이들의 목회는 한국전쟁 직후의 사회현상이나 모더니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던 미술계 안에서의 방향과 달리 전통에 대한 고민이 짙게 배어있는데, 전시를 통해 고희동과 같은 세대였던 김용진의 비중과 역할을 이해하고, 아카데미한 화풍의 서양화가로만 알던 김인승을 재발견하는 기회도 되어 유익했다.

그러나 전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계단을 올라 특별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펼쳐진 두 권의 두루마리였다. 한마디로 이번 전시의 압권이다. <명성황후발인반차도明成皇后發輅班次圖>는 21미터가 넘는 장대한 길이와 4,800명이 넘는 각양각색의 행렬인물과 의상의 위용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한쪽 벽을 모두 차지하고도 모자라 미처 다 펼쳐지지 않은 두루마리의 나머지를 보며 한참을 아쉬워해야만 했다. 명성황후의 국장을 계기로 황제국을 선포하였던 당시의 긴박함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매우 희귀한 역사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이념을 선포한 대한제국 최초의 반차행렬도로서도 그 의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전 장면이 공개된 적이 없었던 터에, 이번 특별전 기간 세 차례에 걸친 교체전시를 통해 그 전모가 공개된다고 하니 자못 기대가 크다.

바로 옆의 <대한제국동가도大韓帝國動駕圖> 역시 17미터가 넘는 장대한 길이로 시선을 사로잡는데, 최근의 연구를 통해 1868년 군대열무 장면을 토대로 광무년간 이후에 그려진 것은 밝혀졌으나, 주문자와 제작자, 정확한 제작연대와 이모본 여부 등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작이다. 통상적인 다시점의 평면전개 도식을 버리고 새롭게 채택한 단일시점의 조감법은 서양화적인 바탕색의 배경처리와 함께 신선하며, 전통적인 의례도에서 금기시되었던 어용을 당당히 묘사한 도상은 매우 도전적인 흥미를 안겨준다.

그밖에도 네가티브 필름을 연상시키는 김규진의 <흑지금니대나무십폭병풍>과 향토색 짙은 김은호의 <신부성적도新婦成赤圖>, 문기文氣 짙은 수목물골을 바탕으로 근대적인 시선을 접목한 김인승의 붓꽃그림과 이종우의 파리유학시절 그림인 <독서하는 친구> 등은 청신한 분위기의 매우 귀한 작품으로 주목을 끈다. 전시실을 건너가는 중간에 노출 설치된 이화학당 시절의 책상과 의자, 문구류 소품이 당대의 시대 분위기를 증거하며 금란목회 색선에 묘한 현실감을 부여하였던 사실도 특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밖에 암록색 배경에 금빛을 매칭한 외부의 사인물에서부터 내부 인테리어에 이르는 전체적인 디자인은 절제 속에 품격을 잃지 않았고, 친절한 설명과 깔끔한 디자인의 도록은 논고와 인영인影을 포함한 부록에도 공력을 많이 기울인 역작임도 감지된다.

대학박물관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감안할 때, 이렇게 완성도있는 특별전을 매년 몇 차례씩 개최하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전통과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의 “전통과 현대”전이 이 분야 전시에 새로운 기준을 세워 다른 박물관·미술관에 영향을 주었듯이, 이번 특별전도 다음 전시로 계속 이어지는 새로운 전통의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김 울 립**



기획전시관 내부전경

담인복식미술관

근대기의 우리 복식

담인복식미술관의 2014년 가을특별전 “근대기의 우리복식”은 개항 이후 새롭게 유입된 근대문물의 영향으로 서구화되고, 기능적으로 변모해가던 당시 복식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전시이다. 1876년 일본과의 수교 조약을 체결한 이후 밀려든 서양문물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고유한 삶의 양식은 물론 복식문화도 빠르게 변화시켰다. 우리의 의복은 전통의 유지와 서구문화의 수용이라는 시대적 갈등 속에 재탄생되어 근대기의 독특한 문화적 표상이 되었다.

전통 복식의 변화는 제복制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문무관복文武官服은 그 종류와 형태가 간소화되다가 서양의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 사회에서의 대외 관계에 적합한 복장이 요구되면서 관제官制 개편과 함께 양복洋服形으로 바뀌었다. 문관복은 대례복大禮服, 소례복小禮服, 상복常服의 세 종류로 구분했으며 대례복은 영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서구식 대례복을, 소례복은 유럽 시민의 예복인 연미복과 프록 코트frock coat를 받아들여 제작되었다. 상복은 구미에서 평상복으로 착용되던 색코트sack coat와 같은 형태였다. 이러한 서양식 제복의 수용과 함께 양복은 상류층을 중심으로 남성의 예복으로 인식되는 한편, 전통복인 한복은 일상복으로서 단추와 호주머니를 다는 등 외래의 요소를 절충하여 그 기능이 개선되었다.

여성들은 보다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서양문화를 받아들였다. 남녀 평등사상이 대두하면서 장옷과 쓰개치마를 벗은 여인들은 세계적인 유행 흐름을 따라 단발머리나 파마머리 등 다양한 머리모양을 선보이며 양산, 핸드백과 같은 서양식 복식소품으로 멋을 냈다. 보석반지와 브로치 등의 장식품도 유행하였다. 동시에 여성의 한복 저고리는 길어지고 품이 넉넉해졌으며, 치마는 폭이 줄어들고 어깨허리를 달아 편하게 입도록 보완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다양한 색상과 문양의 옷감이 수입되고 화학염료를 이용한 염색법, 기계를 활용한 재봉법, 뜨개질이나 서양식 자수와 같은 장식 기법이 소개되어 생활 전반에 이국적 취향이 향유되기도 했다.

본 전시에서는 이와 같이 근대기에 새롭게 변화된 관복官服과 일상복, 장식품 등을 선보인다. 그 안에서 한복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당시 복식의 다양한 면모와 함께 전통을 바탕으로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시대정신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담인복식관 내부전경

전시연계 학술특강

박물관은 가을특별전과 연계하여 학술특강을 개최한다. 그 시작으로, 본교 홍선표 교수는 “근대 한국회화의 역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근대회화의 흐름을 개관하였다. 송희경 선생은 현재 전시 중인 <대한제국 동가도>에 관한 의문점인 동가動駕의 시기와 제작시점, 제작자에 대해 해석해보며, 박계리 선생은 <명성황후발인반차도>의 구성, 제작과정 등을 분석해 이화여대박물관 소장본이 갖는 의미를 강의한다. 내년 3월에는 근대 서양화단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미술평론가 조은정 선생의 강연과 1950-60년대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서화동호인 모임인 금란목화에 관한 김소연 선생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11월 27일에는 “오용길 기증특별전 마음이 머무는 풍경”과 연계해 작가와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전통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용길 교수의 작품세계를 들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학술특강 I	2014. 11. 21. (금) 오후 3:30~4:30 / 박물관 강당 ·근대 한국회화의 역정 (홍선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학술특강 II	2014.12.12. (금) 오후 2:30~5:00 / 박물관 강당 ·수수께끼에 싸인 고종의 거동, (대한제국 동가도) (송희경,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황제국의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명성황후발인반차도) (박계리, 한국전통문화학교 초빙교수)
학술특강 III	2015. 3. 20. (금) 오후 2:30~5:00 / 박물관 강당 ·근대기 서양화단의 전개 (조은정, 미술사학자, 미술평론가) ·금란목회: 문인문화의 근대적 향유 (김소연,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작가와 대화	오용길 / 2014. 11. 27. (목) 2:00~3:30 / 박물관 강당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이대박물관으로 떠나는 문화나들이

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9일과 11월 26일 오후 7시까지 관람시간을 연장하고, 큐레이터의 안내에 따라 상설 테마전과 기증특별전, 그리고 지난 11월 새롭게 개막한 가을특별전을 관람하는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전시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전시 설명회에는 평소 업무와 학업에 쫓겨 박물관 전시를 여유롭게 즐길 수 없었던 교직원과 본교생, 외부 관람객의 참여가 이어져 우리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2월과 2015년 1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2014 가을특별전 “근대화: 대한제국에서 1950년대까지”와 “근대기의 우리 복식”, 상설전과 기증전의 전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관람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자유관람으로 진행됩니다.

일자	관람시간	관람내용
2014. 12. 31. (수)	17:30-18:10	특별전 “근대화: 대한제국에서 1950년대까지”
	18:10-18:40	담인복식미술관 특별전 “근대기의 우리 복식”
2015. 1. 28. (수)	17:30-18:10	상설전 “조선시대 여인의 삶”
	18:10-18:30	기증전 “마음이 머무는 풍경”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이대박물관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험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박물관은 2014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교육 사업의 운영관으로 선정되었다.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수업이 없는 토요일을 중심으로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창의 체험과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자 기획된 교육 사업이다. 본관은 9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로 총 2기를 구성, 16회에 걸친 전시연계 역사문화예술 탐방프로그램 <이대박물관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험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박물관 전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내 역사현장으로 이어지는 수업은 시청각교육과 체험활동, 답사 및 현대미술작가와 협업 등 다채로운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에서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선조들의 삶과 근대기의 역사문화를 다각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본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열정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박물관은 가을특별전 및 상설전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가을학기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을 위한 ‘이화동창 전시설명회’를 신설하여 교정에서의 추억과 더불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체험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특별전과 연계하여 ‘대한제국에서 온 편지, 나만의 엽서와 우표 발행하기’와 ‘금란지교, 박물관에서 교감을 나누다’, 상설전과 연계한 ‘이대박물관에서 만나는 나만의 친구, 정성이 담긴 손바느질 인형 만들기’ 등의 교육을 기획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	진행일정	
·이대박물관에서 만나는 나만의 친구, 정성이 담긴 손바느질 인형 만들기 [6세~청소년 대상]	오전 10:30~12:00	12/20
·대한제국에서 온 편지, 나만의 엽서와 우표 발행하기 [6세~청소년, 성인 대상] ※성인반 별도 운영	오전 10:30~12:00	12/6,12/27
	오후 2:30~4:00 ※성인	12/20
·금란지교, 박물관에서 교감을 나누다 [성인 대상]	오전 10:30~12:00	12/13
	오후 2:30~4:00	12/27

2014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교육후기

<이대박물관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험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라는 제목을 엄마에게 받고 나서는 굉장히 미심쩍었다. 제목은 왜 이렇게 거창한 것일까.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런 걱정들이 쓸모없는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은 첫 번째 시간에 활동하자마자였다. 조선의 도읍지였던 한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박물관에 직접 가서 한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니! 이 활동이 매일 기다려지고 할 때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더욱 기대가 되었다. 첫 시간에는 조선의 도읍지이자 한양이라고도 불리었던 한성의 지도 그리기, 한양도성박물관 전시관람 및 활동 등으로 딱딱한 책보다 한성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양한 조선의 삶을 엿볼 수가 있었다. 풍속화를 통해 서민들의 일상을 살펴보고, 그들은 쉽게 볼 수 없었던 국새와 왕의 초상화, 어좌뿐만 아니라 인현왕후가 만들었다는 놀이판도 볼 수 있었다. 박물관 전시를 그냥 봤다면 지루했을 텐데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난 뒤 미션활동을 해서 기억에 오래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대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여인과 무관의 삶에 대해 배웠다. 조선시대의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다. 또, 무관의 차림새를 알아보고 그들이 썼던 모자도 만들고, 희망자에 한해서 무관복을 입어보는 체험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인상 깊었다. 가장 최근에 참여한 네 번째 수업은 고종이 생활했던 덕수궁에 가서 서양식으로 지은 석조전과 여러 전각을 본 다음 덕수궁 밖에 나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증명전, 옛 이화학당의 흔적을 간직한 이화여고 심슨기념관과 지금은 호텔이 되어버린 환구단과 옆에 세워진 황궁우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산들도 보았다. 격주로 4번이나 참가한 역사문화탐험대는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정말 만족스러워서 앞으로가 더욱 더 기대된다.

2기 교육생 김민찬 (서울대길초등학교 6학년)



박물관 소식

MUSEUM NEWS

알림

제 12대 박물관장 오진경 교수의 임기만료로 인문과학대학 미술사학과 장남원 교수가 제 13대 박물관장으로 부임(2014년 8월 1일자)하였다.

전시·개막식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지난 11월 5일 가을특별전 “근대화-대한제국에서 1950년대까지”를 개최했다. 기획전시관에 준비된 “근대화-대한제국에서 1950년대까지”전은 대한제국기(1897-1910)에서 1950년대까지의 근대회화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성립된 개념과 제도를 통해 현재 한국화단의 기틀을 마련한 근대시기의 회화를 조명해보는 의미 있는 전시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이 소장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5일 열린 개막식 행사는 장남원 관장의 인사말에 이어 연세대학교 관현학과 금관5중주의 연주와 제막식, 함께하는 전시관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015년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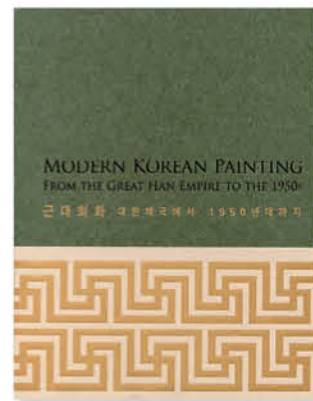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2015년 3월까지 “근대화-대한제국에서 1950년대까지”와 연계한 본교 수업 및 본교생, 교직원과 이화동창을 위한 ‘전시설명회’와 ‘전시체험 특별교육프로그램’인 ‘대한제국에서 온 편지, 나만의 엽서와 우표 발행하기’, ‘금란지교, 박물관에서 교감을 나누다’를 진행한다. 또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신설할 예정이다. 2015년 상반기에 진행될 <동아시아 미술 산책>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과 일본의 전통미술을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으로, 회화 및 도자, 불교미술뿐만 아니라 복식과 건축을 아울러 미술사적 교류를 되짚어 보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신록의 푸름이 가득할 5월에는 박물관 8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과 연계하여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근대기의 역사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며 그 맥을 이어온 백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와 연계한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	구분	프로그램	기간
성인	문화예술 아카데미	동아시아 미술 산책	2015년 3월 중 개강
	전시 설명회	본교생을 위한 전시설명회	2015년 3월~4월 주중
		교직원을 위한 전시설명회	
		본교 수업연계 전시설명회	
		이화동창을 위한 전시설명회	
체험교육	금란지교, 박물관에서 교감을 나누다	2015년 3월~4월 중 토요일	

신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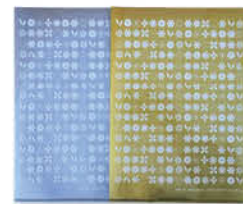
2014년 가을을 맞아 특별기획전 <근대화 - 대한제국에서 1950년대까지> 도록이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번 도록은 대한제국기에서 1950년대까지의 근대회화의 흐름을 소개하는 전시작품으로 구성되어있다.

아트샵

아트샵 신상품으로 메탈컬러 백, 메탈컬러 파우치, 금제장신구 홀더가 출시되었다. 메탈컬러 백과 메탈컬러 파우치는 호일링 공정을 거친 메탈릭한 소재로 제작된 가방과 휴대용 파우치로 기존 호일링 원단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감이 뛰어나다. 메탈컬러 백은 그레이와 브론즈 2가지 색상으로 파우치는 블루, 그레이, 브론즈, 골드핑크 4가지 색상으로 제작되었다. 소장 유물인 금제장신구를 응용하여 디자인·제작된 금제장신구 홀더는 2중 포켓홀더로 실용성을 강조한 문화상품이다. 색상은 실버와 골드 2종으로 선보이고 있다.



메탈컬러 백



금제장신구 2포켓 홀더



메탈컬러 파우치

도슨트 소식

2014년 제 24기 도슨트는 한국어 도슨트 38명, 외국인인을 위한 영어 도슨트 10명, 일본어 도슨트 1명으로 총 49명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도슨트들은 지난 8월에 전시 및 박물관 교육을 마쳤으며, 현재 한 번의 외부전시교육을 남겨두고 있다. 본교생들뿐 아니라 타교의 남녀학생들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도슨트 지원자들은 매학기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가을 특별전과 기증전, 상설테마전의 전시 관람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관람객들의 전시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기증소식

본교 영어영문과 홍문자 동문은 조선시대 <유교문자도 儒敎文字圖 8폭 병풍>, <책거리冊巨里 10폭 병풍>, <태수행락도 太守行樂圖> 총 3점을 기증하였다. 이번에 기증된 <유교문자도>는 문방도 계열의 8폭 병풍으로 자수와 유사한 패턴을 정교하게 표현한 작품이며 19세기 도화서 화원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책거리 10폭 병풍>는 채색없이 수묵으로만 그려진 19세기 말 병풍으로, 기명의 문양이 정교하고 총석정 등의 실경산수를 화폭에 담은 보기 드문 수작이다. <태수행락도>는 기녀를 거느리고 사냥하는 태수太守의 모습을 담은 19세기 풍속화로 전래되는 풍속화 가운데 화면의 크기가 크고 표현이 섬세하며 화려하게 채색된 뛰어난 작품이다.



홍문자 기증
(본교 영어영문과 졸업생)

유교문자도 儒敎文字圖
8폭 병풍, 각 65×40.5cm
종이에 채색

책거리冊巨里 10폭 병풍
각 95.5×28cm, 종이에 먹



태수행락도 太守行樂圖
121×69cm, 종이에 채색



김홍남 기증
(본교 인문과학대학 미술사학과 명예교수,
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장,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윤석남 作, Thank you, 2013년
116.5×69.5cm, 복합재료



김선숙 기증
(본교 전 영어영문학과 교수)

도예연구소 제작
청자상감 운학문 주자 靑瓷象嵌 雲鶴文 注子
1960년대, 높이 30cm

독자의견 Reader's Opinions

『박물관 문화』와 박물관에 의견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Museum Culture wants reader's opinions. Those of you who want to submit an opinion or suggestion, please contact us.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실
Curatorial office,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E-mail. museum@ewha.ac.kr, tel. 02-3277-3152, fax. 02-3277-3153

2015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80주년(1935~2015)



독서하는 친구 | 소장품 갤러리

설초 이종우 雪蕉 李鍾禹, 1926
62.7 x 51.5cm, 캔버스에 유채

설초雪蕉 이종우李鍾禹(1899-1981)는 1899년 황해도 봉산의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1917년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였다. 1923년에 졸업한 그는 고희동, 김관호, 김찬영에 이어 네 번째로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서양화가로, 이후 1925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 겔랑 연구소를 거쳐 슈하이에프의 연구실에서 대생수업을 받으며 사실주의 기법을 심화시켰다.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1927년 프랑스의 전람회인 살롱도톤Salon d'Automne전에 〈모某부인의 초상〉(1927)과 〈인형이 있는 정물〉(1927)을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현재 “근대화화 - 대한제국에서 1950년대까지”에 전시되어 있는 〈독서하는 친구〉(1926) 또한 파리 유학시절에 그려진 대표작이다. 당시 파리는 실험적인 전위미술의 경향이 주된 흐름이었으나 이종우는 이러한 동향과는 무관하게 서양화의 가장 기초적인 화법인 사실주의 기법에 치중하였다. 〈독서하는 친구〉는 파리에 머무른 당시 한국인 유학생을

그린 것으로, 서구의 신문화를 받아들인 지식인의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인물의 모습을 이상화하지 않고 얼굴의 표정, 근육, 주름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실제 모습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근대기에는 책을 읽거나 들고 있는 인물 표현이 즐겨 다뤄졌는데, 이는 새로운 시대의 지식인을 재현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화면 왼쪽 상단에는 붉은 색으로 “PARIS 1926 종우 LEE”라는 작가의 사인이 있어 제작 장소와 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작가의 이름 ‘종우’의 ‘o’를 겹쳐서 위아래로 배치하고 이를 우측에 벽지의 무늬처럼 다시 표현한 것이 흥미롭다. 1928년에 귀국하여 같은 해 11월 동아일보사의 주최로 열린 개인전에서 이 작품도 전시되었다. 서양 회화의 본고장에서 직접 수학修學한 이종우의 작품은 당시 일본을 통해 서양화를 받아들였던 한국 근대화단에 새로운 길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한국 근대화사적인 맥락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독서하는 친구〉를 통해 전통적 인식 체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추구했던 근대인의 삶을 읽을 수 있다.

학예연구원 장 미

